

◇우리교회 성구◇

나의 힘이 되신 여
호와여 내가 주를 사
랑하나다
(시편 18:1)

충현

1974년 9월 1일 발행

발행인 김 창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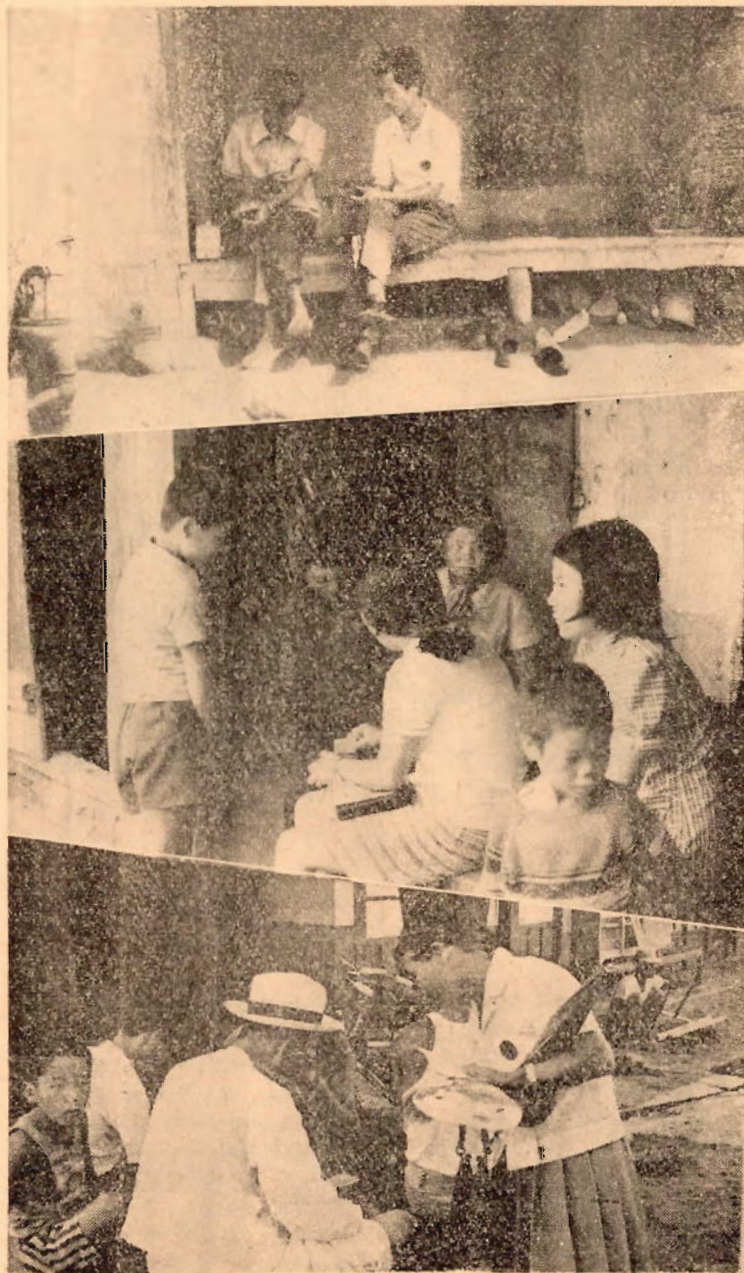
편집인 윤 종 순

서울중구충무로 5가36

대한 예수교 장로회

충 현 교 회

(27) 9937 · 9738



<농어촌전도대의 활동>

<사 설>

「나」와 교회의 힘

“지푸라기도 많으면 코끼리를 묶을 수 있다”라는 영국의 속담이 있다. 이 말은 지푸라기처럼 힘이 없는 것이라도 여러 겹으로 합해지면 큰 힘을 가진다는 말이라.

금년 여름에도 계획하였던 각종 행사들을 은혜 가운데 마쳤다. 각종 수양회, 농어촌 교회 지도자 초청 훈련과 전도대 파송등을 통하여 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온 교회가 힘을 모아 주시므로 얻은 바 수확이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유기적 관계를 가진 지체가 된 성도로 이뤄진 것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지체이요 온 성도는 그 몸의 지체이다. 그러므로 머리되신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며 기뻐하시는 일에 지체된 성도들이 움직일 수 있어야 바람직하다. 그리스도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하시교자 하는 일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그 일을 담당하여야 한다. 병들어 그 기능이 마비되지 않았고, 몸에서 떨어져 나간 지체가 아니고 생명적 연결을 가지고 있다면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오늘의 충현교회에 수천의 지체 곧 내가 있는 그 목적을 생각하여 보자. 결코 교회 밖에 나가 있는 제3자는 있을 수 없고 바로 내가 맡겨진 일에 적은 정성을 쏟아 놓을 때 교회는 큰 힘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주교 각급 여름행사 성료

—예년에 비해 큰 성과 거두고—

지난 7월 15일 대학부 수양회를 필두로 74년도 각급주교 하계행사가 활발히 진행되어 예전에 비해 큰 성과를 거두고 무사히 마쳤다.

매년 하계행사를 통하여 신앙의 향상과 새로운 차원의 결단을 꾀하여 실시되는 하계행사는 금년엔 예년에 비해 질과 양적으로 발전했을 뿐만 아니라 모든 행정과 계획면에서도 새로운 창의력을 엿볼 수 있었으며 진행면에서도 그간의 경험을 토대로 안정되고 규모잡힌 것으로 평가되었다.

더운 일기와 부족한 시설 중에서 열과 성을 모아 살아 움직이는 교회,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 천국 일꾼을 키우는 교회임을 다시 한번 실감케 한 금년 주교 각부 하계행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유치부

기간 : 7월 29일~8월 1일
장소 : 본 교회당
주제 : 성전과 예배
주강사 : 원우연전도사(양문교회)

◇ 새·유·초등부

기간 : 7월 29일~8월 1일
장소 : 본 교회당
주제 : 성전과 예배
주강사 : 백영규전도사
참석인원 : 119/825명 (유치부 포함)

◇ 중등부

기간 : 7월 29일~8월 1일
장소 : 총회 신학대학
주제 : 말씀의 권세를 얻자
(행 19:20)
주강사 : 홍성개장도사
참석인원 : 29/306명

◇ 고등부

기간 : 7월 24~27일
장소 : 무궁화촌 (시내 성동구 명일동)
주제 : 성장하는 천국일꾼
(벧후 3:18)
주강사 : 신성중전도사
참석인원 : 21/180명

◇ 대학부

기간 : 7월 15~19일
장소 : 총회신학대학
주제 : 그리스도의 흔적을 갖자
(갈 6:17)
주강사 : 박희천목사 (후암제일교회)

참석인원 : 10/98명

◇ 청년부

기간 : 7월 16~18일
장소 : YMCA캠프장(다락원)
주제 : 오직 예수
주강사 : 정상우목사
참석인원 : 8/118명

※ 참석인원은 일평균, 교사/학생



<어린이 성경학교 저녁예배 광경>

—밀는 자의 본이 되자—

장로 수양회

8월 5일부터 7일까지

지난 8월 5일부터 7일까지(2박 3일) 입석수양관에서 장로님들만이 모인 수양회를 가졌다.

정상우목사, 신성중전도사를 강사로 모신 가운데 열린 금년 「장로 수양회」는 별전 5장 3절을 주제성구로 하여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자」는 주제하에 실시했는데 20여명의 장로님들이 참가하였다.

제2회 어린이 수양회 개최

작년에 이어 2번째로 어린이 수양회(초등부)가 지난 8월 12~14일(2박 3일) 일경으로 무궁화촌에서 열렸다.

지금까지 중학생이상으로만 실시했던 수양회를 확대, 어린이간의 특별신앙훈련과 단체생활등을 통해 신앙의 생활화를 목적으로 실시된 어린이 수양회는 지난해 어린이회원들에 한해 실시했던 것을 금년은 참가 범위를 확대, 5학년 어린이

전체를 대상으로 삼았다.

시간계획에 의거 성경읽는 시간, 오락회, 체육회, 찬양, 찬송가 부르기 대회, 모닥불 예배 등을 통하여 새로운 신앙에의 결심과 감격을 참가한 90명의 어린이들이 모두 느꼈다. 이는 「천국일꾼을 기르자」는 본교회의 표어에 가장 핵심적이고 근본적으로 접근할 수 있었던 의의 깊은 행사였으며 가장 바람직한 훈련이었다.

농어촌 교회 지도자 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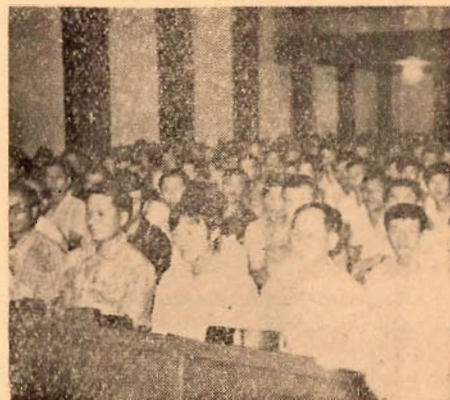
—대전이북 54교회의 138명,

본교회에서 비용 일체 부담코—

3번째 실시하는 농어촌교회 지도자 훈련이 지난 8월 1일부터 5일까지 본교회에서 열렸다.

본교단 산하 2,500여 교회중 농어촌에 산재한 교회의 평신도 지도자의 부재와 또한 자질향상의 필요성을 절감한 본교회는 72년부터 농어촌의 평신도 지도자를 초청 훈련시키고 있는데, 금년에는 대전 이북 지방의 54 교회서 138명을 초청하여 훈련시켰다. 또한 이에 소요되는 왕복여비는 물론 일체의 비용을 본 교회가 담당하였다. 금년의 훈련내용을 보면 성경, 중단의 비결

3시간, 교회행정 1시간, 성경론 3시간, 전도훈련 3시간, 교회부흥론 1시간, 교회음악 3시간, 주교 관리 3시간 및 특강, 영화감상, 라담회이며 4일(일) 오전에는 본교회 각급 주교참관, 오후에는 청년부, 대학부 회원과 합동으로 전도실습을 가졌다. 강사로는 김창인목사, 김희복목사, 백성룡목사, 김재창목사, 정상우목사, 전성덕목사



<중앙예배에 참석한 훈련생>

47명에게 교사 자격증 수여

—제6기 지도자

양성부 수료식—

지난 7월 20일(일) 저녁에대시 지도자 양성부 제6기 수료식을 가졌다.

지난 1월 13일 개강하여 매주 일 11시 50분부터 2시간씩 공부해 온 지도자 양성부 제6기는 총 47명 수료했으며 이날 수료식에는 수료증 및 우등상, 개교상 등의 시상과 아울러 교사자격증도 수여됐다. 지금까지 본 양성부를 수료한 자는 모두 263명에 달한다.

김영삼 집사

신민당총재로 선출

본 교회 집사이며 손 명순 집사의 부군되는 김영삼 집사는 지난 8월 22일 열린 신민당 경향대회에서 총재로 선출되었다.

경남 거제에서 출생, 당년 47세로 26세부터 의원생활을 시작한 김영삼집사는 그동안 신민당 부총재로 있었다.

부친 김 홍조 장로는 투철한 신앙인이다.

제3회 농어촌전도대 파송

—8월 5~10일, 총 51명—

본교회는 매년 여름마다 실시해 온 농어촌 전도대 파송을 지난 8월 5~10일까지 9대로 편성, 총 51명을 각지방으로 파송했다.

계속되는 무더위와 모기에 뜰기며 전도와 교회부흥에 힘쓴 본 전도대는 매년마다 전도대 파송 요청을 하는 각 농어촌의 교회와 전도기간동안 질로 양으로 부흥하는 각 지교회의 모습을 실제로 대할 때 전도대들의 수고와 땀흘림은 곧 기쁨과 감사로 바뀌곤 한다.

지난 72년 농어촌교회의 부흥과 질적인 향상에 도회교회로서의 책임감을 절감하고 실시된 농어촌교회 지도자훈련과 함께 전도대 파송은 해마다 큰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이다. 금년도 6대로 계획된 것을 9대로 증가 편성하여 실시한 각대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제 1 대

지도: 전성덕목사 외 5명

지역: 강원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둔내장로교회>

제 2 대

지도: 이종영전도사 외 5명

지역: 경기 이천군 신둔면 도암리 <도암교회>

제 3 대

지도: 이승근전도사 외 5명

지역: 충남 서산군 고북면 <신상제일교회>

제 4 대

지도: 김태현전도사 외 5명

지역: 충남 서천군 화양면 <화양교회>

제 5 대

지도: 이연호전도사 외 5명

지역: 충북 괴산군 청천면 삼송 2리 <삼송제일교회>

제 6 대

지도: 홍종만전도사 외 5명

지역: 충북 단양군 대강면 장림리 <대광교회>

제 7 대

지도: 이효은집사 외 1명

지역: 경남 의령군 화정면 상정리 <화정교회>

제 8 대

지도: 김안옥집사 외 6명

지역: 경북 예천군 용문면 금곡리 <금곡교회>

제 9 대

지도: 윤봉준선생 외 5명

지역: 경기 연천군 전곡면 <승전교회>

◇ 설 교 ◇



현실과 나와 신앙

고후 4:7-12

홍 중 만 전도사

현실사회의 일원으로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생활이 표면적으로는 주위환경으로 부터 보다 더 심각한 억압과 저항을 받아야 할 처지입니다. 이것은 부조리한 세상에서 믿음의 정조를 지켜 살고자 하는 우리에게 피할 수 없는 당연한 저항입니다.

그러나 본문의 말씀은 이러한 저항속에서 조금도 낙심치 않고 굴하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정복하여 살아 나아가는 성도의 생의 비전을 잘 설명하여 줍니다.

여기 본문에 말씀 하시기를 가난한집 밥상에서 된장찌개나 담을 천한 질그릇에 귀중한 보배가 담겼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바울선생님이 자신의 깊은 은혜의 체험에서 하신 고백입니다.

바울사도는 자기가 질그릇 같다고 고백합니다. 마음속을 살피니 불 모양 없고 추하고 조금만 부딪치면 깨지는 값없는 천한 존재란 말합니다. 과연 인생은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으로 가득하였습니까(벧전 2:11).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으로 추한 상태입니다(요일 2:16).

이러한 자신을 깨닫은 바울사도는 「나는 죄인의 죄수」이다.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지경에까지 신앙이 깊어질 때에 참된 회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같이 내 자신이 질그릇같이 천한 존재임을 깨닫게 될 때 참으로 겸손한 자리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같이 천하고 약하고 추한 질그릇같은 내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생명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보화는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전 15:50)하셨고,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고후 2:14).

이 보화는 질그릇같이 천한 우리에게 적합한 엄청난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구하지도 않았고 찾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살 만한 것입니다(마 13:44). 이 보화를 위하여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이삭을 바쳤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도 사양치 않았습니까. 모세는 애굽의 모든 영화를 포기하였습니까. 역대의 신앙인들은 이를 위하여 자기의 귀중한 생명을 소개와 같이 버렸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전히 있습니다. 즉 내 속에 복음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나 여전히 「질그릇」이므로 8절 이하에 보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합니다. 담당한 일을 당합니다. 핍박을 받습니다. 거꾸러 뜨림을 당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생활을 오해하여 하나님을 믿으면 반드시 만사가 형통하여 가정도, 사업도, 직장도, 모든 것이 여의하게 되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오히려 질그릇 같은 육에 쌓인 인간은 때로는 환란이, 절망상태가 짓밟힐이 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같이 질그릇이기 때문에 수난이 있으나 반면에 그 속에 담긴 복음의 능력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기드온 사사의 300명 군대가 항아리는 부서지고 췌를 들고 나팔을 불며 웨칠 때 미디안의 진이 무너졌습니다. 이것이 신앙적 최후 승리의 모습입니다.

성도들이 아무리 세상에서 우겨쌈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궁지에 빠지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우리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인하여, 결국은 싸이지 않고 낙심치 않고 버틴바 되지 않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은 안일한 것이 못됩니다. 우리 교회는 십자가 군병으로 소집되어진 전투대로 묘사될 수 있습니다. 불의의 세력의 공세를 막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동원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너무 천합니다. 약합니다. 추합니다. 그러나 걱정은 없습니다. 보화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길 능력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최후승리의 보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친애하는 중현의 교우여러분,
우리로 향하여 저항하여 오는 이 세상의 불의의 세력에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다만 질그릇 같은 나 자신을 깨닫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능력을 받아 세상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천국일꾼이 됩시다.

<초등부 지도교역자>

□ 방송 설교 안내 □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김창인 목사 담당—

• 기독교방송(HLKY)

• 매 화요일 오전 5시 45분~6시

> 성가부 편 <

끝없는 영광과 은혜의 찬송을

—30세~60세의 여성성가대 등 각예배의 찬양을 담당—

성령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호흡이 있는 자는 누구나 그의 거룩하심과 구원의 은총을 공경하고도 찬송의 소리로 서로 화답하며 감사함으로 영원부터 영원까지 거룩한 자의 회중에서 찬송하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러한 말씀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듣는 성도들에게는 은혜를 끼치고자 당회의 정식 결의를 거쳐 성가부가 탄생된 것은 1955년이다.

성가부 발족시 유일한 본 성가대였던 「청년 찬양대」는 그후 10여년 동안 정말 어려운 시련의 고비가 많았지만 이를 극복하고 1966년 이삼은 전도사의 취임과 함께 「청년 성가대」로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하여 왔다.

또한 같은 해 「여성 성가대」가 발족되면서 성가부의 활동은 가일층 활발해졌으며 그후 장족의 발전을 이루어 주일학교 각부에 성가대를 새로이 조직하거나 이미 조직되었던 것을 지원하여 오늘날에 이르러는 대학·고등·중등·초등·유년·유치 등 여러 성가대의 건전한 발전과 육성을 위하여 계속 노력하고 있다.

현재 성가부장에는 임 광식 장로가 1970년 이래로 오늘날까지 계속 찬양하고 있으며 본 성가대인 청년·여성 성가대와 대학부 성가대를 간단히 소개한다.

(1) 제일(청년) 성가대

우리 교회 성가대중 가장 오래된 성가대로 1955년 발족된 이래 20여년간 대에배시는 물론 교회의 모든 행사 때마다 아름다운 성가로 교회에 봉사하고 있다.

현재는 3부 예배시 찬양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름이 청년 성가대라 청년들만이 대원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알기 쉬우나 실상은 연령제한을 두지 않고 있으며 지

난 8월 25일 그 이름을 「제일성가대」로 바꾸고 오히려 폭 넓은 연령층의 구성을 희망하고 있다.

정기 연습은 주 3회(주일 오전 11시, 주일 예배 후, 토요일 저녁 7시)로 하고 있으며 본 교회 등록된 세례 교인으로 성가로 교회에 봉사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청년 성가대나 교회 사무실로 문의하면 된다.

현재 : 대원 40명 지휘—김 정일 <임광식 부장>

반주—천 혜숙



(2) 여성 성가대

1966년 3월, 26명의 대원이 이삼은 전도사를 초대 지휘자로 출발한 이래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여 오늘날에는 가장 안정되고 대내외의 큰 자랑이 되고 있다.

현재 2부 예배의 찬양을 담당하고 있는 여성 성가대는 교회의 제절에 따른 행사와 그 외에 대외적인 행사 특히 여전도연합회 주최 음악경연대회에 출전할 때마다 중창·합창부에서는 항상 1·2등을 차지하여 실력을 자랑하기도 한다.

이러한 여성 성가대의 특징은 30~60세까지의 주부로 구성되어 단결과 충성을 바탕으로 극성이라 하리만큼 바쁜 가정생활중에서도 시간을 내어 연습에는 물론 기타 모든 행사에 모두가 적극 참여하고 있다.

입대절차는 우리 교회에 나오는 세례 교인으로 성가로 봉사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자격이 있으며 교역자의 소개를 받아 성가대 총무나 차장에게 알리면 약간의 음악적 테스트를 거쳐 임명을 받게 된다.

현재 : 대원—52명, 지휘—홍 익훈, 반주—서 은숙

(3) 대학부 성가대

1970년 조직된 이래 젊음이 넘치는 성가대로 각광을 받고 있는 대학부 성가대가 주일학교 성가대로서 본 성가대의 역할을 담당하기 시작한 것은 금년초 1부 예배의 찬양을 담당하게 되면서 부터이다.

7시에 시작되는 1부 예배에 서려면 새벽부터 준비를 서둘러야 하기에 처음에는 교회 어른들의 염려도 없지 않았으나 이는 기우였고 젊음이 많은 기백을 심본 발휘하여 가장 힘차고 정성이 담긴 성가로 솟아오르는 아침 햇살처럼 영광과 은혜의 찬송을 드리고 있다.

현재 : 대원—70명, 지휘—김 중식, 반주—백 신숙

<표>



<아와예배에서의 제일성가대>

특집 : 1974년 여름행사의 결산

① 여름 성경학교와 수양회

성장하는 천국일꾼

- ◇... 해마다 여름이 되면 주일 학교 각부마다 한 여름의 무더위와는 아랑곳 없이 성경 학...◇
- ◇...교와 수양회로 한 여름을 지새운다...◇
- ◇... 올해도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며 조그마한 집단을 이루어 생활하는 가운데 187명 교...◇
- ◇...사와 1,527명 학생들의 심령은 작렬하는 8월 태양보다 더 뜨겁게 달아올라 배설물같은...◇
- ◇...모든 죄의 찌꺼기를 태워버리고 한층 성장한 천국일꾼으로 바뀌었다.◇
- ◇... 이제 우리는 제한된 지면이나마 주일학교 각부 여름행사의 이모저모를 함께 살펴보...◇
- ◇...기로 하자.◇

□ 새신자부 · 유치부 · 유년부 · 초등부

1. 목표와 지도방향

어려서부터 성경을 바로 가르쳐 말씀대로 생활하는 신앙인으로서의 인격성장을 목적으로 하는 제21회 여름 어린이 성경학교가 「거룩한 성전에서 참된 예배를 드리자」라는 주제로 7월 29일부터 8월 1일까지 열렸던 것이다.

특별히 금년에는 공과공부시간 뿐만이 아니라 교회문을 들어서면서 시작된 어린이 교육은 교회문을 나설 때까지 모두 교육의 기회로 활용하여 배운 바를 생활 속에 그대로 실천토록 한다는 지도방향이 아래 모든 계획이 세워졌다.

주요과목은 성경공부 · 찬송공부 · 특강 등으로 예년과 별다른 바 없었으나 교사와 어린이의 교제를 위하여 휴식시간을 대폭 늘이고 그 운영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온 점과 오전에 배운 바를 어린이들이 실제에서 익힐 수 있도록 마련한 오후 특활시간은 이번 여름성경 학교의 특이한 점이라 하겠다.

또한 조직에 있어서 학습진행 담당에는 노련하고 경험이 풍부한 교사들로 구성하고 행정지원 부서와 같은 기능적에는 젊고 역량이 있는 교사들을 과감하게 기용한 것도 특징으로 부언할 수 있다.

2. 성 과

주제가 「성전과 예배」인 만큼 최초 아담의 제단으로부터 시작하여 성막과 성전을 거쳐 오늘날의 교회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가르치면서 예배의 필수 요건과 참 예배자의 태도는 어떤 것인가를 깨닫게 함으로 어린이들의 모든 예배가 참되고 아름다운 예배가 되도록 지도한 결과 종전보다 어린이들의 예배드리는 태도가 훨씬 좋아지게 되었다.

또한 개교기간 중 학교 소집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벽 · 아침 · 저녁 예배를 합한 1일 평균출석인원이 1,659명으로 1970년 이래 최고의 기록(70년—1,655명, 71년—1,561명, 72년—1,497명, 73년—1,483명)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유치부는 전년도 보다 41% 정도가 증가한 1일 평균출석인원이 248명에 이르렀고 3세 미만의 영아를 분리 운영하여 교수와 관리면에서 크게 성공함으로 유치부를 영아부로 분리, 운영할 단계에 이르렀다는 실증을 얻게 되었다.

내외적으로 별로 유리한 조건도 없는 금년에 이같은 전반적 증가추세는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요 땅과 모든 힘을 쏟아 부은 교사들의 결실이라 하겠다.

이외 한두가지 더 든다면, 휴식시간의 운영이 매우 성공적이었고 교사 준비 공부와 새로운 시각제를 사용한 저녁 부흥집회의 반응이 색 좋았으며, 무엇보다도 이번엔 참가한 교사들의 70% 정도가 조사결과 매우 만족하고 보람을 느꼈다는 대답도 하나의 성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교육제1부 여름성경학교 기간중의 한 모습>

3. 생각해 보아야 할 몇 가지

1) 수업진행 여건

1963년 이래 10여년이 흐르도록 아직도 시설문제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중 하나가 교육시설 문제이다. 이번 개교기간중 교육현장을 한바퀴 돌아본 분이라면 교사와 학생들이 말로 할 수 없는 악조건하에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음을 실감하였을 것이다.

특히 2·3학년과 유치부와 같은 경우는 교실이 너무도 비좁은데다가 학부모임들까지 들어차 마치 한증막 처럼 확확 몰아치는 뜨거운 열기에 숨이 막힐 지경이었고 인접교실에서 들리는 소음으로 도저히 무슨 말인지 알아 듣기 어려울 정도였다.

다행히 새로 마련한 동(東)관에서 수업한 1학년의 경우는 여유있게 수업다운 수업을 진행함으로 비좁은 교실로 인한 수업장애가 얼마나 크며 그 해결이 얼마나 시급한 것인가를 대조적으로 보여 주었다.

교실문제 해결에 있어 동(東)관이 다소의 도움은 되나 근본적 해결은 못된다고 보여 현재 교회내에 있는 모든 교실의 크기가 일정하지 않고 또 분산되어 있어 교실의 운영면에서 그 기능을 충분히 살리기 어려운 처지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보다 합리적인 교실배치와 운영으로 현재 교실의 기능만이라도 최대한 살리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항상 물발적으로 수업진행을 방해하는 마이크 시설은 좀더 완벽하게 보완되어야 할 것이며 환기 시설 또한 시급히 보완되어야 할 문제이다.

아울러 부연하면 영사기, 스크린, 제도철이, 성경지도, 칠판등과 같은 절대 부족의 교육보조제도 연차적인 구입계획을 세워 확보하여 나가도록 하여야겠다.

2) 수업진행과 내용

배다수의 교사들이 지적한 문제는 6일로 되어 있는 공과를 4일로 조정하여 가르치기에는 상당히 무리였다는 것과 2학년과 5학년을 기쁜한 어린이 교본의 내용과 배부에 있어 크게 개선하여야 할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저녁예배 2부순서로 마련한 환들은 서울이라는 지역의 특수성 때문인지 반응이 좋지 않아 전면 재검토하여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고 모처럼 마련한 오후 특활이 경험부족과 준비미흡으로 기대치에 이르지 못하였음은 매우 아쉬운 일이었다.

특강은 좀더 심고 변화 있고 알차게 보강할 필요가 있으며 매일의 숙제지는 어린이들에게 너무 과중한 점이 되지 않도록 배려하여야 할 것이다.

3) 교사

제적 170명의 1부주교 교사중 이번에 참가한 교사는 119명(타부 지원교사 14명 포함)이며 교사수 부족으로 134학급을 88학급으로 축소할 수 밖에 없었다.

앞으로는 좀더 많은 교사가 참가하도록 사전 권고와 교회의 격려가 필요하다고 느끼며 합반시 학급 인원이 가급적 균등하게 하여 교사가 통솔하는데 있어 큰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 하겠다.

또한 교사들로 하여금 더욱 뜨거운 사명감과 적극적인 참여로 책임을 다하도록 하는 문제와 여름·겨울 성경학교만의 특수성을 고려한 교사훈련이 필요하다고 느껴진다.

<정 은표 간사>

□ 중등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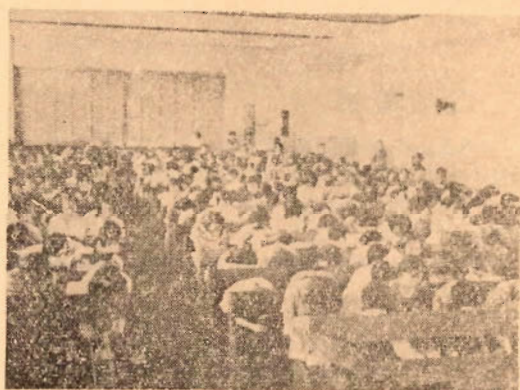
7월 29일부터 8월 1일까지 3박 4일간 홍성개 강도사를 모시고 “말씀의 권세를 얻자”라는 주제로 중회신학대학에서 열린 중등부 수양회에는 310여명이 참석하여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큰 은혜를 받았다.

쏟아지는 비를 흠뻑 맞으며 출발하였지만 교통편에서나 식당, 숙박시설 등이 예년보다 한결 좋아서 즐거운 수양회를 갖는데 큰 보탬이 되었다.

와해되기 쉬운 정적인 신앙보다는 지적 확신속에 투철하고 확고한 신앙을 소유자는 의미에서 “말씀의 권세를 얻자”라는 제목의 매일 저녁 부흥회 설교는 매우 감명깊은 것이었다. 또한 “기독교성과 이성교제”라는 제목으로 들려준 신 성종 전도사의 특강은 신적 변화에 미치지 못하는 정신적인 면의 발달에 큰 도움이 되었다.

작은 터전에서 생활하는 중학생들에게 캠프 파이어라는 자그마한 형식을 통해 얻어지는 효과는 매우 컸다는 사실을 모든 학생들이 이구동성으로 “은혜로웠다”라고 한 점으로 넉넉히 알 수 있었다. 각자 자기의 죄를 작은 종이에 써서 모탁물에 태우면서 성령이 자기 마음속의 죄를 태우기를 기도한 후 평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참으로 은혜스러운 수양회였다.



□ 고등부

제12회 고등부 수양회는 7월 24일부터 27일까지 3박 4일간 신 성종 전도사를 모시고 명일동에 있는 무궁화촌에서 열렸다.

참가인원은 약 180명 정도였고, 교사들이 많이 참석하여 학생들의 뒷바라지에 큰 힘이 되어 주었다. 장소가 시내에서 가깝고 아직 수업이 계속되는 학교가 있어서 고3을 중심으로 몇몇 학생들은 무궁화촌에서 통학하기도 하였다. 수양회 장소로는 약간 좁은 것 같았으나 다행히 저녁 부흥집회 장소로 명덕 성결교회를 사용할 수 있어서 별로 지장을 받지 않았다.

“성장하는 찬귀일꾼”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수양회에는 신 성종 전도사가 새벽기도, 주제강연, 저녁 부흥집회, 그룹기도회 등 거의 모든 순서를 담당하여 수고하였다.

개회 예배에서는 “우리는 어린이가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영적성장의 필요성을 재인식하게 되었다. 첫날 저녁 예배의 “네가 어디 있느냐?”라는 설교로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라는 선언아래 있는 자신들을 발견하고는 회개와 통성기도 소리가 끊일 줄을 몰랐다.

특히 예전에 없었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은 매우 성공적이었다. 새벽 예배 후의 고요한 시간을 이용하여 이곳 저곳으로 흩어져 각자가 자유롭게 성경을 읽고 명상에 잠기었다.

깨끗한 공기과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만끽하며 지낸 3박 4일간의 아쉬움을 뒤로 하고 무궁화촌을 떠났다.



□ 대학부

“그리스도의 흔적을 갖자”라는 주제 아래 지난 7월 15일부터 4박 5일간 시내 후암제일교회에서 시무하시는 박 회천 목사를 모시고 총회신학대학에서 제 5회 수양회를 가졌다.

참가 인원은 모두 98명으로 이는 작년보다 상당히 늘어난 셈이다.

당회장 김 창인 목사의 설교로 시작된 이 수양회 기간동안 박 회천 목사는 저녁 부흥회 설교와 요엘서 강의 및 새벽기도회 때에 말씀을 주셨고 그 외에 원 우연 전도사의 “생활속의 전도” 특강과 김 두영 목사의 “학생생활과 신앙운동”이라는 체험을 중심으로 한 특강이 있었다.

기억에 남을만한 순서는 도착하는 날 밤에 “결단의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촛불 예배가 있었고, 박 회천 목사의 요엘서를 중심으로 민족적 회개를 강조한 성경강의가 있었고, 김 두영 목사의 신앙간증을 중심으로 한 특강이 신입 회원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이었다.

특히 마지막날인 18일 밤 캠프 파이어를 가진 후에 새벽 4시까지 대화의 시간을 가졌는데, 별들이 반짝이는 밤에 젊은이들이 삼삼오오 모여 대화를 나누는 광경은 매우 아름다웠다.

수양회가 끝난 후 지도자와 임원, 조장들이 모인 평가회에서는 강사와 임원간에 사전 대화가 부족했다는 점, 일정이 너무 짝 짜여서 자유로운 개인시간을 갖지 못했다는 점과 토론시간이 거의 없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 청년부

금년들어 4번째인 청년부 하기수양회는 7월 16~18일(2박 3일), YMCA캠프장(다락원)에서 실시했다.

주강사로 청년부 지도 정상우목사를 비롯하여 정관 일목사, 이종영전도사, 신성종전도사를 모시고 “오직 예수”라는 주제를 가지고 열렸다.

청년부 발전의 원동력이 된다고 하는 수양회는 금년에 들어 새로운 모습의 발전과 성장을 기약하는 큰 계기가 됐다. 이는 참가한 12)여명의 회원 중 새신자(초신자 및 타고신자)들이 1/3에 이르는 점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금년 수양회에서는 이 초신자들의 친교문제에 많은 신경을 쏟았으며 그 외에도 특강(“그리스도와 청년문화” 신성종전도사), 캠프 파이어 등의 시간과 또한 아침식사전 조별 성경읽기 등은 빈틈없이 짜여진 일정중에서 여유를 가질 수 있었으며 수양회의 의의를 높일 수 있는 좋은 시간들이었다.

매년 느끼는 아쉬움은 2박 3일의 일정이라고는 하지만 저녁에 시작하여 새벽에 끝나야 하는 청년부만의 고민(적장관계로 17일 휴일전후)이었다. 이는 보다 중점적으로 프로그램을 조정하여 제한된 시간을 유호적절하게 보내는 문제가 계속적으로 남아있고, 가장 큰 문제는 수양회를 계기로 늘어난 신입회원들의 육성문제가 남아있는 것이다.



<박 윤식 기자>

■ 특집 : 1974년 여름행사의 결산

② 제 3 회 농어촌전도대 파송

봉사하는 천국일꾼

—남한 4개도의 9개 지역에 파송—

- ◇... 「하기 농어촌전도대 보고회」가 지난 8월 12일 저녁 유년부실에서 강원, 경기, 충청...◇
- ◇...경남등 9개 지역에 파송되었던 50명의 전도대원이 관제 장로님과 목사님들을 모신 가...◇
- ◇...문예 열렸다. 백 성룡 목사의 「전도와 전도자의 자세」라는 제목의 말씀이 있는 후 작...◇
- ◇...대의 대장들의 결과 보고가 있었고 이어서 평가회를 가졌다. 먼저 이제까지의 우리교...◇
- ◇...회 전도활동을 간단히 소개하고 급년 평가회의 내용을 간추려 본 후 끝으로 각대의 보...◇
- ◇...고내용을 들어보기로 하자.◇

1953년 중천교회 설립이후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많은 전도활동이 있었다. 이러한 경향은 개인적인 신앙 훈련에 있어 중요한 기회가 되었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사명감을 불 붙였다.

그러나 당시의 전도활동은 소극적이었고 또 산발적이었다. 이를 감안, 당회에서는 1960년 처음으로 당시 지교회인 충남 서산교회에 「청년 계몽대」를 파송하였다. 이를 계기로 점차 전도활동의 범위가 확대되어 나감에 따라 전도를 위한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하게 되었고 또한 효과적인 전도를 위하여 여러 조직이 생겨나게 되었다.

1972년에 이르러 제 1회 「농어촌 전도요원 훈련」을 7월 11일부터 한주일동안 실시한 후 5대로 나누어 각 교회로 파송하였다. 이전과 달라진 것이 있다면 종래는 현지교회의 여름 어린이 성경학교를 중심으로 활동하였는데 이후로는 현지교회의 전반적인 부흥을 위해 교회 주위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전도활동을 벌이게 된 것이다.

1974년으로 제 3회가 되는 「농어촌 전도대」 파송은 처음 6대로 편성되었던 것이 현지교회들의 간청에 의해 3대가 늘어나 모두 9대가 되었다.

이같이 횡수와 규모가 늘어감에 따라 전도방법에 있어서도 보다 효과적인 방법을 모색하게 되었고 축호전도등의 적극적인 방안도 시도되어 좋은 효과를 거두고 있다. 또한 이와 병행하여 현지교회 지도자들을 초청, 「농어촌교회 지도자 훈련」이 급년들어 이미 3번째 실시되었다.

각대가 꼭같이 보고한 내용의 하나는 현지교회들은 한결같이 교회의 부흥과 함께 교인들에게 전도의 불을 붙여 주 것을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며 될 수 있으면 동기에도 전도대를 파송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또 다른 면에서 볼 때 한가지 염려되는 것은 그들에게 지나친 의타심을 불러 일으키게 되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우리가 직접 나아가서 그들을 위해 일선에서 전도해 주는 것도 좋지만 현지교회의 앞날을 내다 볼 때 이제까지의 방법을 한층 발전시켜 축호전도와 현지교인들에 대한 전도훈련 및 주교사들에 대한 훈련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파송하는 전도대에 대한 훈련을 기

능별로 뚜렷이 구분하여 강화하고 충분한 교육을 시키어야만 할 것이며 전도용 보조재료와 기재에도 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발전시킬 여지가 아직도 많다.

또한 지역적 특성을 충분히 살려서 선용하며 서면조사의 첫걸음 타개하고 항상 농어촌에 대한 정확한 실정파악과 이에 대한 최선의 전략을 세우기 위하여 농어촌교회 문제만 전담하여 연구하는 상설기구를 교회에 설치하면 꼭 효과적일 것이다.

이제까지의 전도대 결과와 활동지역은 다음과 같다.

<표 1>

횡수	기간	지역수	대원수	결신자수	예산액	결신자율
1	6일	5	34	725	263,000	약 21명
2	6일	6	36	818	344,000	약 23명
3	6일	9	51	1494	424,000	약 30명

※ 결신자율/전도대원 1인에 대한 결신자 비율

<표 2>



<표 3> 횡수별 파송지역

1회	경기 덕암교회	경기 귀여리교회
	경기 도내교회	충남 삼흥교회
	충북 군서교회	
2회	충남 옥산교회	충남 와촌교회
	경북 석수교회	경북 마전중앙교회
	전북 진흥교회	전북 해진교회
3회	강원 문내교회	경기 도암교회
	경기 승전교회	충북 대광교회
	충북 삼송제일교회	충남 화양교회
	충남 신성제일교회	경북 금곡교회
	경남 화정교회	

<박 영자 기자>

또한 각 전도대의 보고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 1 대

- 강원 횡성 문내교회
- 원 성덕 목사 외 5명

제 1대는 교회를 중심으로 305가구의 축조전도와 기타 노방전도를 실시하여 115명의 결신자를 얻었다.

이 지역은 유달리 미신이 성행하여 무려 그 종류가 8가지나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것에 주저하거나 겁낼 것이 없이 자 집마다 심방하기 전에 합심하여 열심히 기도하고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니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함께 하심을 체험할 수 있었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돌아 오도록 결신시킬 수 있었다.

어려웠던 집 몇가지를 먼저 이곳의 부락은 큰 길을 따라 발달된 부락이어서 실상 교회중심으로 걸어서 찾아갈 수 있는 가구수는 120여 가구였고 나머지 180여 가구는 자전거를 타거나 버스 등을 이용할 수 밖에 없어 실제 전도활동 시간에 비해 왔다 갔다 한 시간이 너무 많았던 것 같다.

또 이 곳은 장이 서는 곳이었는데 우리 전도대가 가는 날이 장날이요 오는날이 장날이라서 일부 교인들까지도 장날의 영향을 받고 있었다. 장날을 미리 알았더라면 장날을 이용한 노방전도를 실시할 수 있었을 터인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 매우 섭섭하였다.

☆ 특기사항 · 전의사항

- 노방전도 훈련의 필요성 느낌.
- 고속도로 건설중이었다.

◇ 제 2 대

- 경기 이천 도암교회
- 이 종영 전도사 외 5명

277명으로 가장 많은 결신자를 얻었다.

지역에는 부흥집회와 결신의 시간으로 2부순서를 진행하고 환동 · 춘극동의 순서를 준비하여 극성스럽다 할 정도로 열심을 부리고 왔다.

또한 이 인회 대원은 무당잡이의 명수(?)라고 할만 큼 마틴 루터와 같은 물격적 신앙으로 무당의 집을 예고도 없이 급습하여 찬송과 기도로 뒤흔들어 놓고 무당의 남편을 결신시켰는가 하면 또다른 대원은 사이비 종파인 통일교회의 교리적인 두목과의 당당한 담판으로 굴복시킴으로 그 자리에서 눈물로 회개하게 하여 도암리 마을 일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였다.

이러한 역사는 많은 영혼을 건지기 위하여 금식까지

하며 기도하고 나아가 하루에 8시간 정도의 전도활동을 편결과 함께 하여 주신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고 오직 감사드릴 뿐이다.

☆ 특기사항 · 전의사항

- 농촌의 특수사정을 감안하여 점심시간을 늦추거나 혹은 금식하며 전도함.
- 현지 교회의 뜨거운 열력이 있었음.
- 전도를 마친 집 대문에는 승리의 십자가 표시함.
- 전도장비 및 기재의 합리적 분배와 효과적 사용방법을 사전 교육할 것.
- 지도교역자중심의 농어촌전도 세미나를 미리 개최하여 경험에 근거한 효율적이고도 세밀한 전략을 세울 것.
- 전도대를 보다 빨리 구성하고 대장, 서기, 회계, 사진촬영자 등의 담당 부문별 교육을 실시할 것.
- 전도지나 보조재를 여유 있게 준비하여 현지교회 전도대원을 교육한 후 직접 전도에 참가케 할 것.
- 평시에도 전도목사나 유급 전도인을 파송하여 적당한 전도대상지역을 탐색하고 교회가 없는 지역의 전도도 모색할 것.
- 새신자를 위한 교재 및 초신자를 위한 성경찬송이 필요함.

◇ 제 3 대

- 충남 서산 신상제일교회
- 이 승근 전도사 외 5명

이곳 교회는 교역자가 없어 여러가지로 막힌 사정에 놓여 있었고 장로님 1분과 집사님 4분이 근근히 교회를 이끌고 나가는 실정이었다.

1973년 11월에 있었던 부흥집회 때에 많은방이 일어나는 기적을 본 후로는 이곳 주민들은 기독교를 찬양을 치료하기 위한 것으로 착각하고 있었다.

전도대가 현지에 도착하는 날 마침 여름 어린이 성경학교가 시작되어 파송목적과는 좀 다르나 협조하는 뜻에서 1명씩 돌아가며 설교 · 찬송공부 · 용관 · 율동 · 그림동화 등을 어린이들에게 실시하고 교사들에게는 교육심리 · 전도법 · 설교법 · 찬송공부등의 특강시간을 1시간씩 열어 많은 도움을 주었다.

저녁집회는 신앙간증과 찬송을 통하여 뜨거운 열기를 더하였고 특히 중현교회의 전미인 윗집회를 가르쳐 교인들에게 더욱 더 기도의 열심을 불어넣어 주었으며 우리교회서처럼 마지막 날은 새신자 환영회를 열어 성도의 교제를 통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었다.



특히 제 3대는 한번 볼려면 눈물로 회개하고 결신하기까지 놓지 않는다는 끈기 있는 전도로 비록 숫자는 적으나 확고한 결신자 96명을 얻었다.

☆ 특기사항 · 건의사항

- 교역자만 있으면 급속히 부흥할 여지가 있음.
- 주민들의 본포가 충남 · 경북 · 황해도의 3개 도민들로 구성됨.
- 경제적 곤란으로 우리교회와 자매결연 맺기를 원함.

◇ 제 4 대

—충남 서천 화양교회

—김 태현 전도사의 5명

제 4 대는 청년 여자대원이 4명이나 되었든 것이 특징. 그래서 그런지 시중 부드러우면서도 활기에 찬 적극적 활동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널리 전파하며 오직 성령님의 도움을 의지하여 전도에 열을 올렸다.

그러나 신종종교에 대한 지식과 이에 대비한 사전준비가 전혀 없었기에 처음에는 당황도 하였으나 인간적인 지식과 이론적인 방법모색을 떨쳐버리고 단순하고도 도전적인 자세로 「오직 피인된 인간은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을뿐이다.」라고 외치 어린아이와 같이 전적으로 믿고 행하는 자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였다.

또한 현지 교회의 교역자와 교인들에게 열심있는 전도의 본을 보여 전도하고자 하는 열심과 자신감을 이들에게 심어준 것도 큰 수확이었다.

처음부터 끝까지 최선을 다하니 의적으로는 연약한듯한 대원들에게 188명의 결신자를 허락하시사, 하나님의 영광을 들어내게 하시며 대원들 심령속에 한없는 기쁨을 주시니 하나님의 참뜻은 측량할 수 없이 크고 깊음을 다시금 느끼게 되었다.

☆ 특기사항 · 건의사항

- 신종종교에 대한 기초지식과 이에 대처한 사전교육의 필요성을 절감.
- 전도대 활동기간과 현지 여름 어린이 성경학교 기간과 겹치게 되어 전도와 성경학교를 놓고 망설리게 되는데 이럴 경우 양자를 만족시킬 효과적인 해결방안은 없는지…….

◇ 제 5 대

—충북 괴산 삼승제일교회

—이 연호 전도사의 5명

대상 가구가 150여호로 비교적 적은 지역으로 용이한 것이라고 생각하였던 것과는 달리 제일교회라는 이름에 어울리지 않게 너무나 크고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교회여서 제5대는 그야말로 악전 고투하여 눈물도 많이 흘렸으나 막상 이에 대한 결과를 보고하려고 하니 하나님께서 주신 바 은혜가 너무도 크고 놀라워 이제는 기쁨의 눈물이 먼저 앞을 가리운다.

현지 교회는 교회가 설립된지는 20년이 되었으나 10여년 동안 교역자가 없어 목자없는 양치림 방황하게 되었다. 도착하여 제직회를 소집하니 평소 이 교회의 인도자요, 운영자요, 관리자인 집사 2명과 학생 3명이 모였을 뿐이다.

사전에 파악 된 실태조사서에 의해 우리가 알고 있기는 교인이 40명, 주일학교 학생이 30명이었으나 실정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된 순간 이제 수고의 땀과 눈물과 피를 흘리지 않고는 도저히 우리의 말은 바스임을 감당할 길이 없음을 깨닫고 대원 모두는 비장한 각오아래 마루바닥에 엎드려 머리를 조아리고 주님께 매달려 밤을 새워가며 눈물로 기도하였다.

다음날 오후 1시경 동분서주하여, 마을의 유지들을 한자리에 모아 간단한 다과를 대접하다가 적당한 때에 일어나 「당신들의 자녀를 도대체 앞으로 어떻게 할 작정이십니까?」 하고 목메인 소리로 오직 예수를 믿는 길 밖에는 소망이 없음을 호소하였다.

이후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참석한 유지들이 예수를 믿기로 한 것은 물론

제직들도 감동되어 월야기도를 하게 되었고 우리는 승승장구 전도에 승리의 개가를 올렸다.

새로이 믿기로 한 사람은 어른이 123명, 어린이가 91명으로 모두 214명의 결신자를 얻음으로 우리의 기쁨은 말로 다할 수 없었고 이들이 부디 결실하여 교회 부흥에 큰 밑거름이 되어줄 것을 기도하였다.

특히 자랑스러운 것은 새로이 주일 학교를 조직하게 도와주고 이들을 위하여 적으나마 교회 비용을 마련하여주시기도 하며, 적은 예산에

서 심품을 사서 시식을 하는 등으로 용기를 돋우어 주었다.

☆ 특기사항 · 건의사항

- 주일학교를 새로이 조직하고 기도의 모범을 보임.
- 지방유지를 증진한 전도활동 전개.
- 여름 담배농사가 바빠 농한기인 겨울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생각됨.
- 현지교회의 말—우리에게도 소망있소.
- 부디, 동기전도대도……
- 교육자료의 제공이 절실히 요망됨.

◇ 제 6 대

—충북 단양 대광교회

—홍 중만 전도사의 5명.

제 6 대가 파송된 대광교회의 지도 목사님은 이미 오래전 부터 농촌교회에 대한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교회에 헌신하여 왔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하여 비교적 안정된 교회였다.

특히 이 교회의 목사님은 충현교회에 대한 사모의정이 극진하여 교회의 모든 사업에 있어 충현교회를 본받으려 애쓰고 있었으며 스스로를 충북 단양의 충현



괴뢰라고 우스운 말을 할 정도.

대상가구 320여호 중 280호를 심방하여 전도 활동을 펼 결과 모두 155명의 결신자를 얻게 되었고 저녁예배 때에는 환등 및 특송을 하였으며, 특히 전도대원들의 신앙간증은 교인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새로이 밀기로 작정한 결신자들에게 많은 은혜를 끼쳤다.

제6대의 대원 모두는 이 기간을 통하여 성령충만의 뜨거운 열매를 체험하게 되었고 서울에 다시 돌아오는 순간까지 장소와 때를 가리지 않고 누구에게나 「천국과 지옥 중 당신은 어느것을 택하시겠습니까?」라고 전도하여 큰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뜨거운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낀 것은 우리 대원이 돌아오던날 여집사님 한분이 2일간의 품팔이로 마련한 1,000원을 가지고 거울을 사서 주시며 고맙다는 인사를 할 때이었다.

★ 특기사항·건의사항

- 감사장과 기념품을 받다.
- 전도대 파송 1주전에 놓여준 지도자를 미리 상경시켜 함께 준비케 할 것.
- 현지 교회의 전도력 증진방안 모색 필요.
- 도시교회에 비해 지방교회의 경제적으로도 너무 빈약 함으로 도움이 필요.

◇ 제 7 대

—경남 의령 화정교회

—김 일동, 이 호은

9대의 전도대 중 초미니급(?) 전도대로 대원은 단 2명.

그러나 다른 전도대 못지 않은 활동으로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당초 계획이 여름 어린이 성경학교 개최이었던 만큼 모든 활동이 이러한 계획내에서 진행되었다.

도착 즉시 그곳 부락의 4H 부락부 간부들을 만나서 대원들이 온 목적을 설명하고 함께 일할 것을 부탁하고는 경찰서장, 우체국장 등 그곳의 유지급들을 찾아가 인사를 드리고 관공서 내에서 간단히 예배를 드린 후 우리들의 뜻을 전하였다.

이렇게 하여 전도의 문을 연 후에 성경학교 시간 외에도 시간 있을 때마다 축호전도를 실시하여 350여 가구 중 270 가구를 찾아보고 84명의 결신자를 얻었다.

이곳은 특히 철저한 씨족과 불교로 얽혀 있어서 일부 유지의 방해가 심해 학생들이 어른들의 눈치를 보아가며 교회에 나와야 하는 어려움도 있었으나 마지막 날 있었던 모닥불 예배에는 어린이들 뿐만이 아니라 주민들까지 1,000여명이 모여 정말 멋진 전도를 할 수 있었다.

이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능력의 손길이 함께하신 것으로 적은 우리는 오직 감사찬송을 드릴뿐이다.

★ 특기사항·건의사항

- 어린이 성경학교 중심으로 활동.
- 씨족과 불교의 영향으로 어려움 많음.

◇ 제 8 대

—경북 예천 금곡교회

—김안옥 집사의 6명.

뒤 늦게 조직된 7·8·9대 중의 한대로 인도자 외에는 대원 전원이 나이 많은 여자 어른들로 구성되었다



는 것이 특징이었다.

대상가구수 1,000여호로 가장 많은 중에도 900여호를 방문하여 168명의 결신자를 얻었다.

제8대는 처음부터 전도대원 2명과 현지 교인 1명을 포함시켜 모두 4개조로 편성하여 전도 활동을 펼치며 전도대원들의 전도활동과 병행하여 현지 교인들이 전도훈련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실시하였다.

우리가 파송된 곳은 4개 성씨가 씨족집단을 이루고 있는 완고한 곳이었어서 인사치레는 결함아도 신불(信不)에 대한 거부를 시원스럽게 밝히지 않을 않아 답답하기도 하였지만 무엇보다도 급하게 조직된 우리대원 모두가 훈련과 준비의 미흡함을 절실히 느끼었다.

★ 특기사항·건의사항

- 갑작스런 전도대 조직은 지양되어야.
- 전도대 구성원을 노, 장, 청 골고루.
- 여름뿐만이 아니라 겨울에도 전도대를 파송하면 어떨지…….
- 전도지와 부채가 좀더 중독하였으면 좋겠고 각종 전도용 기구는 현대화를.

◇ 제 9 대

—경기 연천 승전교회

—윤 봉준 외 5명

현지는 군부대 지역이라는 특수한 사정으로 교회 지도 교역자와 지도자문제 교사문제 등 어려움이 많은 교회였다.

특히 제9대는 중, 고등학생들에게 중점을 두어 전도 활동을 펼치며 결신자 중 대부분이 학생들이었다. 이들에게는 전도하여 직접 신앙고백을 받고 함께 손을 잡고 기도를 드림으로 더 큰 믿음의 확신을 갖도록 하였고 마지막 날에는 결신한 학생들의 가정방문을 일일이 방문하였다.

450여 대상 가구 중 370가구에 대한 축호전도를 실시하여 197명의 결신자를 얻었다.

★ 특기사항·건의사항

- 필히 지도교역자 동행요망.
- 주일학교교사와 교재의 절대 부족.
- 전도사를 파송할 수 있었으면…….
- 결신자의 사후처리에 철저를.

<신 재원 기자>

■ 특집 : 1974년 여름행사의 결산

③ 제 3회 농어촌교회 지도자훈련

가르치는 천국일꾼

경제적인 어려움 보다 더 시급하고 심각하다고 볼수 있는 농어촌교회의 지도자 양성으로 농어촌교회의 항구적 부흥책을 마련하고자 우리 교회가 1972년 이래 매년 실시하여 오고 있는 「농어촌교회 지도자훈련」이 올해로 3번째를 맞게 되었으며 회수를 거듭할 때마다 더할 수 있도록 지혜와 힘과 물질을 허락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는 오직 감사드릴 뿐이다.

1972년 제 1회 때에는 10교회 26명의 지도자가 훈련을 받았고, 1973년에는 50교회 89명의 지도자가, 1974년에는 54교회 138명(전도사-14, 장로-2, 집사-60, 교사-59, 기타-3)의 농어촌 교회 지도자들이 4박5일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알차고 고된 훈련을 받고 각자 자기들의 교회로 돌아갔다.

총 46만여원의 경비가 소요된 이번 「농어촌교회 지도자훈련」에 참가한 참가자들에게는 지도자 훈련교본(37p)과 여름 성경학교 안내서(28p)가 제공되었으며 식사, 숙소, 왕복 여비 등 비용 일체를 우리 교회에서 부담함으로써 마치 교회라도 참가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도록 한 것은 대단히 잘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당회장 김 창민 목사님을 비롯하여 모든 강사진(목사-6, 전도사-4, 집사-1)이 우리교회 내에서 구경할 수 있었다는 것도 상당히 고무적인 것이다.

이번에 실시한 교과내용을 보면 심령부흥회·교회행정·교회부흥책·침지기론·전도훈련·성경론·이단비판·주교관리·교회음악 등과 영화감상·전학·좌담회 등이었다.

짧은 기간에 비하여 상당히 폭 넓은 것이기는 하나 일부 훈련 참가자들이 지적한 바 대로 농어촌교회의 실

제적인 문제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교과가 보충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끝으로 본 총현지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훈련 참가자들의 대체적인 여론과 몇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 훈련지도자들의 여론

- 살아 움직이는 총현교회와 지도자 훈련의 사업 추진에 크게 감명을 받았다.
- 심령 부흥회 및 강의에 깊은 감명과 지식을 얻었으나 좀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였으면 좋겠다.
- 훈련기간이 너무 짧다.
- 매년 이 훈련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었으면 좋겠다.
- 훈련기간을 농한기로 하면 좋겠다.

▲ 개선방안

- 훈련기간을 7월 중순에 실시하여 훈련받은 바를 각자 교회의 하계행사에 활용하게 하고, 전도대 파송대상교회에서 사전 준비를 하게 한다.
- 훈련대상을 각 지역 단위로 하여 그 지역 노회의 협조를 얻도록 한다.
- 농어촌교회 교역자들도 훈련할 필요성이 있다.
- 농어촌 교회의 부흥과 건전한 유대를 위해 부흥회(사경회) 강사를 지원 파견한다.
- 농어촌 지도자 훈련과 전도대 파송활동이 해마다 그 필요성과 의의가 깊어가는 현실에 비추어 이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활동과 계속적인 지원을 위해 우리 교회에 이를 위한 상설기구가 필요하다.

컬 럼

불평등한 섭리의 오묘함

김 회 숙

언젠가 한번은 어머니와 함께 어떤 분을 그 맥으로 찾아뵈게 되었다. 그 분은 취미가 독특하여 옛 유물들을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시었다. 우리가 그 맥을 방문하였을 때에도 역시 유리잔을 받친 청자접시라든가 그것들을 담아내는 손때 묻어 반질거리는 팔모 나무상으로 보아 넉넉히 그 고상한 정취를 엿볼 수 있었다. 이층 양옥과 청자의 회한한 조화를 생각하다가 문득 이사야의 비유가 떠올랐다.

기왕에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을 토기장이로 우리인간을 지으심을 받은 걸로써 조각으로 비유하였거니와(사 45:9, 10), 신약시대에 이르러 사도바

울도 우리를 하나님 집에 쓰이는 각종 그릇으로 비유하여 항상 자신을 깨끗이 준비하여 둘 것을 명하고 있다(딤후 2:20, 21). 너무도 흔히 언급되는 그릇이란 문제에 대하여 다시금 조용히 생각하여 보고 싶다. 햇빛과 공기가 그러하듯, 그 독생자를 믿음으로써 얻게 되는 영생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 누구에게나 동등하다. 그러나 하나님은 피조된 인간이 범치 못할 당신의 주권을 갖고 계시기때문에 야곱과 에서를 태로부터 분별하신 측량할 수 없는 불평등의 섭리(?)로써 이 세상을 오묘하게 치리하고 계신 것 같다. 바로 나 자신에게 더 나아가서는 온 세계에 그러하신 것이다. 곧 그 뜻대로 우리를 지으셨거니와 또 그 뜻대로 정하신 복의 분량과 종류조차 다 다르게 허락하신 것이다. 정말 금그릇이었는데가 하면 은그릇이 있고, 질그릇이 있는가하면 나무그릇도 있다. 각기 그 종류뿐, 아니라 목적 또한 무한 다양하다. <16페이지에 계속>

진리(眞理)란 무엇인가?

신 성 중 전 도 사

- ☐ 신앙은 진리되신 그리스도를 받아 들이는 손이며 진리를 판가름하는 ☐
☐ 주관적 척도이다. 즉 순종이 바로 신앙이다. ☐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재판을 받는중에 빌라도는 “진리가 무엇인가?”(요한 18장 38절)고 물었다. 그러나 그는 진리가 무엇인지 알려는 성실성이 없었다. 그는 예수님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예수님에 대한 자기의 견해를 밝혔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진리를 찾으려는 성실성이나 노력 없이 그저 호기심으로 물을 뿐이다. 진리를 *aletheia* 라고 하는데 그 뜻은 “변함 없는 것”을 뜻한다. 예수님은 도마와의 대화 가운데서 자신을 진리자체(요한 14장 6절)이시며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길이심을 말씀하셨다. 일반적으로 말해 진리란 인생에 대한 물음과 병행한다. 사실 진리는 인생만이 물으며 인생만이 소유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인생만이 진리를 떠나서는 만족할 수 없는 존재이다. 따라서 진리에 대한 물음은 인생에 대한 물음과 함께 시작되어야 한다.

그러면 인생이 무엇인가? 우리는 몇 가지의 고전적 해답을 생각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무신론적 해답가운데 “진화 속의 인간”을 말한 진리안 혁슬리의 견해, 인간을 경제적 존재로 보고 참 자유의 회복을 사유재산의 폐기에서 찾으려 했던 칼 막스, 그리고 인간을 sex에서 해석하려 했던 시그먼드 후이트의 견해 등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관의 대표적 예이다. 그 다음으로는 유신론적 인생관으로서 키엘케골의 실존적 인간 특히 현대인을 구경꾼과 군중으로 보고 실존을 세가지로 구분한 그의 견해는 아직도 큰 공감을 준다. 그는 미적 실존, 윤리적 실존을 넘어서서 일상성과 자기에 착을 포기한 하나님 앞에 선 종교적 실존을 참 인간으로 보았다. 그리고는 신앙과 자발적 고난 그리고 기도를 강조한다. 말틴 부버의 대화속의 인간관은 비록 그가 유대인이기는 하나 기독교의 인간적 관계를 “나와 당신”의 관계에서 본 것은 영원한 진리라고 하겠다.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인생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는가? 창세기 일장에 나타난 고전적 해답인 하나님 형상으로서의 인간관은 인생에 대한 본질을 보여준다. 여기서 우리는 인생이 마땅히 가져야 할 성품은 물론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인생의 관계를 발견하는 것이다. 물론 how의 진리는 하나님을 모르고도 가능하다. 그것은 하나님의 보통 은혜에 기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why의 진리는 오직 길이요 진리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만이 그 해답이 가능하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복록해 주신 진리는 무엇인가? 크게 셋을 들 수 있다. 첫째는 인간은 모두 죄인이며 구원을 필요로 하는 구원예의 존재라고 하는 것과 두번째는 하나님은 죄인들을 버리지 않고 용서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다. 셋째로 인

류의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는 도성인신하셨고 이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으며 이를 위해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독교 진리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 사건에 집중된다. 성경은 진리의 효력에 대해 죄에서의 해방(요한 8장 32-33절)과 성화(요한 17장 17-19절)를 말하고 있다. 그러면 이 진리를 어떻게 받아 들일 수 있으며 그 표준은 무엇인가? 그것은 다름아닌 신앙이다. 신앙은 진리되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손이며 진리를 판가름하는 주관적 척도다.

그러면 신앙이란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말해 사람과 사람의 근본적 태도이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신앙(*pistis*)은 이런 평면적 관계가 아니다. 그 뜻은 첫째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에서 볼 수 있듯이 “꼭 붙잡는다”는 뜻과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보여 주듯 “내 모든 전채를 내어 맡긴다”는 뜻이 있다. 그뿐 아니라 히브리서로 *emunah*인 신앙은 “하나님과 그의 계약에 충성하는 것” 즉 순종이 바로 신앙이다. 따라서 신앙은 단순한 심적 느낌이 아니다. 여기엔 언제나 행함이 뒤따르기 마련이다. 쉽게 말해 신앙이란 창조적 도덕력으로써 사랑, 소망, 기쁨, 평화로서 표현된다. 야고보 2장 14-26절의 말씀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 그러면 지식과 신앙의 관계는 무엇인가? 요컨대 그 대상은 둘다 진리되신 그리스도이며 그 관계는 지식이 연료라면 신앙은 불이 됨과 같이 서로 떼어질 수 없는 관계를 가진다. 지식이 결여된 신앙이 미로로 가기 쉽듯이 신앙의 불이 없는 지식은 죽은 것이며 쓸모없는 것이 되고 만다. 히브리 11장은 널리 알려진대로 신앙장으로서 신앙이 무엇임을 가르쳐 준다. 즉 신앙은 미래에 대한 소망이요 아직 얻지 못한 것을 이미 소유한 것처럼 확신하는 것이다. 에머슨의 말을 빌리면 믿음은 종달새 앞에서 종달새 소리를 듣는 것과 같다.

그러면 진리는 여러가지로 나눌 수 있다. 진리 자체 이신(the Truth) 그리스도와 이 진리에 대한 증거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이 두가지에 대한 증거인 사도들의 증거는 다 넓은 의미에서 진리이다. 그뿐 아니라 성경은 진리를 판가름해 주는 진리의 객관적 척도(*canon*)가 된다. 그러므로 진정한 의미에서 신앙을 떠난 진리는 참 진리가 못되며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거짓과 함께 정제를 받을 것이다.

끝으로 중현의 모든 성도는 진리시오 그 척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표준으로 삼고 거기서 참 만족과 기쁨을 구하며 이를 위해 살든지 죽든지 남은 여생을 바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 관 소 식

□ 교 회

- ☞ 1974년 하반기 종합평가회가 9월 10일 당회원과 교역자들이 모여 실시할 예정.
- ☞ 1974년 추기 대심방이 9월 19일(목)부터 실시될 예정.
- ☞ 일본국 파송 선교사 후보로 현 초등부 지도 중 종만 전도사를 8월 25일 당회에서 결정.
- ☞ 엑스플로 '74 중구지구 훈련장소로 8월 14~17일까지 우리 교회 사용 허락.
- ☞ 7월 21일 지교회인 경남 화정 교회에 오르간 1대 기증.
- ☞ 7월 14일 백추감사절로 지키다
- ☞ 지난 6월 지교회인 통일촌교회 교회자립을 위한 녹지 8천평 중 4천평을 개간하여 도를 심었다.
- ☞ 제2훈련소 군인교회 건축을 위하여 금일봉을 보조하였다.
- ☞ 6월 30일 교회 부동산으로 총무로 5가 36-2번지 3층양옥 매입. 대지 125평 9홉, 전평 113평으로 동관(東館)으로 이름붙임.
- ☞ 교회 부동산으로 총무로 5가 36-1번지 2층양옥 매입계약, 대지 38평 1홉 6푼, 전평 16평, 사택으로 사용될 예정.
- ☞ 성경암송대회—본 교회 전교수가 참가할 수 있으며(고등부이하 주교생 제외 단, 가족 암송에는 제한 없음) 11월 17일 오후 3시 실시 예정. 성경은 시편 119편.
- ☞ 7월 10일 정 창근씨 교회 사찰로 신구제용.

□ 주일학교

- ☞ 주교 I부—9월 한달을 대심방의 달로 맞아 일제심방과 아울러 75학년을 대비하여 생활기록부도 완전정리 예정.
- ☞ 주교 I부—교사를 위한 특강. 오는 9월 29일 오후 유년부실.
- ☞ 주교 I부—성경 이야기 대회가 9월말과 10월초에 각부별로.
- ☞ 주교 I부—교사 약의예배가 10월 9일, 학무간사는 10월말.
- ☞ 주교 I부—제21회 여름 어린이 성경학교 종합시상식이 지난 8월 4일 오후 3시에 본당에서 실시.
- ☞ 초등부—올들어 3번째 연구수업 지난 8월 18일 오전 당회실에

서 남 5-5반 한 형식 선생 지도로 35명의 교사가 참석.

- ☞ 중등부—지난 7월 28일 저녁에 배를 헌신예배로 드린다. 「뜻을 정한 다니엘」이라는 제목으로 이연호 전도사가 설교.
- ☞ 중등부—신임원 수련회를 지난 7월 16~19일까지 열다.
- ☞ 중등부—지난 7월 7일 김 정걸 전도사를 강사로 「백추감사절의 의의와 교훈」이라는 제목의 특강 갖다.
- ☞ 고등부—지난 8월 4일 오후 3시 면회회 정기총회 열다. 회장: 김형삼, 부회장: 정현철, 윤지영
- ☞ 고등부—지난 7월 17일 오전 9시부터 동성중고등학교 교정에서 목요회대항 천선체육대회 개최. 8개교의 79명이 참가하다.
- ☞ 대학부—제 1회 대학부 성가대 수양회를 지난 8월 19~20일 무궁화촌에서 열다.
- ☞ 대학부—8월 18일 집회장소를 별관 4층에서 동(東)관(교육관) 2층으로 이전.
- ☞ 대학부—지난 7월 28일 대학부 지도자 교제. 신임 신성종 전도사. 전임 천성덕 목사 청년부로.
- ☞ 청년부—지난 7월 7일 정관일 목사는 고등부 지도로 가시고 후임에 이종영 전도사. 또 9월 부터는 3년여 동안 수고하시던 정상우 목사 후임에 천성덕 목사가 부임.
- ☞ 노년부—9월 29일 3부 예배 후에 정기모임에서 성경 암송대회 실시 예정.
- 기타 각 기관
- ☞ 구역권찰회—새신자 육성과 성인교육을 위하여 그룹제도 등 새로운 방향을 모색중.
- ☞ 구역권찰회—연 2회 대심방중 1회는 중래방법(권찰, 구역장 동행)으로. 1회는 교역자들만 심방을 실시하도록 연구중이며, 심방을 받지 못하는 교인들은 적극적인 개인상담을 실시할 예정.
- ☞ 성가부—8월 25일 당회에서 「청년성가대」 명칭을 「제일성가대」로 고치기로 하고 연령구분 없이 청장년을 대상으로 대원 증원에 주력하기로 하다.
- ☞ 제일성가대—7월 2일 지휘자 교제. 신임 김정일, 전임 김석두.
- ☞ 여성성가대—8월 8일 총회신학

교에서 열리고 있는 여전도대회 연합회 수양회에 성가로 봉사하였다.

- ☞ 여전도회—사병들에게 설교를 들려주기 위한 녹음기 1대를 8월 11일 육군 28연대 80연대 군인교회에 기증.
- ☞ 성경학원—1974년 제 2학기 성경학원 학생모집. 9월 13일까지 성경학원 사무실로 입학원서를 제출하기 바라며, 전형방법은 면접. 9월 16일 개학하여 12월 21일 학기를 마치게 됨.
- ☞ 성경학원—지도자양성부 제 7기 생 모집. 9월 22일까지 원서마감
- ☞ 성경학원—신성종 전도사 신임강사로 부임. 새학기부터 성경학원과 지도자 양성부에서 강의 예정.
- ☞ 「충현」지—당회와 재정위원회를 제외한 교회 모든 회의에 「충현」기자증 패용시에는 자유로이 출입하도록 당회에서 정식허락.

◆ 조정된 건물사용 배치 ◆

1. 영아부실—현 별관 저하식당.
2. 유치부실—현 유치부실.
3. 새신자부실—현 새신자부실.
4. 유년부실—현 유년부실.
5. 초등부실—현 초등부실.
6. 어린이회실—현 목사상담실.
7. 중고등부실—현 중고등부실.
8. 중등부 면회회실—현 I부주교사무실 뒷방.
9. 고등부 면회회실—현 I부주교사무실.
10. 대학부실—동관 2층.
11. 청년부실—동관 3층.
12. I부주교 교사실—현 여성 성가대실.
13. II부주교 교사실—현 II부주교 사무실.
14. 주일학교 종합사무실—현 경비실과 경비실에 연결된 가건물 개조 사용.
15. 교역자실—현 중고성가대 연습실.
16. 교인 상담실—동관 별 2층.
17. 「충현」지 편집실—현 교역자실.
18. 제일(청년)·여성 성가대 연습실—동관 1층.
19. 유모 예배실—현 청년부실.
20. 식당—동관 1층.

기자 석

※...설사 우리가 원치않는
다 해도 중현에 대한 농어촌
교회의 기대는 날로 날로 커
갈 것이다.

이것이 누구의 뜻일까?

이는 20대 중현의 모든 정력을 한국농어촌교회를
위하여 바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고 그
무엇이라. 그러나 무엇을 어떻게 하는것이 진정한
농어촌교회의 앞날을 위함인지 다시한번 진지하게 생
각해 보아야겠다.

그리하여 이제는 성장하는 중현으로 뿐만이 아니
라 농촌과 어촌의 구석구석에서 땀 흘리는 천국일
꾼으로, 또 지도자다운 중현으로서의 면모를 갖추
어 나아가야 할 것이다.

<표>

※...인간이라는 가난한 이름을 가졌기에 우리는
분배 넘치는 행복을 소유한 것 같다.

가난의 밑바닥에서부터 하나 하나 채워 갈 수 있
는 인생을 깨닫고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시
작하게 될 때에 우리는 가난하지만 행복을 느낄 것
이다.

이 이름에 채색옷을 입혔을 때가 아니다. 이 이
름에 화려한 치장을 하였을 때가 아니다. 자신의

무력함을 시인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주 안에서 무
엇인가를 할 수 있을 것이며, 장차 그리스도의 영
광에 동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가진 것은 별로 없으면서도 화려한 것발
을 나부끼며 입으로만 만사를 해치우려는 언행불일
치의 우리 주변을 볼 때 안타깝다 못해 서글프기까
지 한 것이다.

<영>

※...“많은 죄악 중에 가장 큰 죄악은 무관심이
다”라고 한 어느 영국작가의 말이 생각한다. 개인
이 개인에게 대한 무관심은 불화로 나타나고 개인
이 단체에 대한 무관심은 무책임으로 나타난다.

올 여름도 우리 교회에서는 많은 행사가 치루어
졌다. 참가한 사람들은 무더위와 악조건 하에서도
땀을 흘리며 최선을 다했다.

그러나 또 일부는 뒷집을 지고 서서 보기만, 아
니 보지도 않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 그래서 자기
가 소속한 부처에서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
는 줄도 모르는 사람들도 있다. 우스운 일은 이와
같은 사람들은 자신은 자기의 일을, 자기의 책임만
큼은 다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일이다. 우리 모두가
나를 포함한, 내가 있음으로 “우리”가 되는 것을
잊지 말자.

<수>

◇ 기자 모집 ◇

「중현」저를 위하여 책임감 있고 성실하게 일할
「중현」지 기자 약간명을 모집합니다.

우리교회 교인으로 세례를 받고 고졸이상의 학력
을 가진 사람은 남녀 구별 없이 누구나 응모할 수가
있습니다.

응모를 원하시는 분은 교회 사무실의 이 배규 장
로님께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에서 컬럼 계속>

과연 하나님은 금그릇이 되지 못한 불명으로 자
기를 가득 채우고 있는 질그릇 대신에 겸손으로 깨
끗하게 씻어 준비하고 있는 나무그릇을 사용하실
것이요, 크지 못함을 한탄하고 있는 금그릇 대신에
작지만 순결한 은그릇을 사용하실 것은 자명한 일
이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
환경이나 재물이나 지혜나 재능 등등—에 감사함으
로 자족하는 비결(빌 4:11, 12)을 터득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 우
리 마음그릇을 깨끗이하여 성령님의 채우심을 위하
여 온전히 비워 드릴 때 우리의 주일되시는 하나님
께서 기쁘고도 귀하게 우리를 세주실 것이다. 요는
제로나 대소의 문제가 아니라 순결과 헌신이 문제
인 것이다.

우리의 있는 처소에서 빛된 자녀의 구실을 잘 감
당하며 주님을 위해 최선의 삶을 살아 드릴때 자랑
할 것이 진정한 우리 자신에게만 있게 될 것을(갈6:
4) 믿어 의심치 않는다.

편집하고 나서

□...이번호에는 금년 여름행사를 특집으로 엮어보았
다. 자라는(성장) 천국일꾼, 일하는(봉사) 천국일꾼,
가르치는(교육) 천국일꾼 등 3면으로 구분하여 주일학
교 자부 여름행사와 농어촌교회 전도대파송 그리고 농
어촌교회 지도자 초청훈련에 있어 비교적 자세한 내용
과 아울러 몇가지 문제점을 생각하여 보았다.

□...해마다 많은 노력, 인원, 예산을 기울여 실시되
는 여름행사가 일단 무성한 무화과나무처럼 열매 없는
행사는 아니었는지, 지난 일이지만 다시 한번 돌아보고
보다 나은 1975년을 계획하는데 이번호의 특집이 도움
이 된다면 편집자로서는 그래도 땀흘린 보람을 느낄수
있을 것이다.

□...눈으로 볼 수 없었지만 주일학교 자부 수양회,
농어촌지도자 초청훈련, 농어촌전도대 파송 등 갖가지
여름행사에 모뎀어주신 모든 교우들의 일들하고도 정
성어린 손길들.....

이 정성의 불길들 끄지 말고 자꾸자꾸 들을시다. 그
래서 이듬으로 달인 저 38선 너머 북녘 하늘에도 그
리스도의 밝고 뜨거운 사랑의 빛이 비취게 합시다.

□...여러 교우들을 위해 보다 알찬 「중현」저를 만들
어 보겠다는 편집진의 기대를 무참히도 꺾어 버리는 경
험을 이제는 좀 면하게 해 줄 수 없는지.....

원고 청탁과 뉴스 취재를 위해 이리뛰고 저리뛰는
일선 기자들에게 조금만 더 친절히 그리고 성의있게
대하여 주시기를 거듭 부탁.

<표>